

# 구례군, 중대재해예방 공직자 직무교육추진



구례군은 21일 팀장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 책

## 팀장급 이상 공직자 대상으로 실무교육 실시 “군민과 종사자에 대한 사고예방 노력해줄 것”

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 컨설팅기관인 ㈜미래산업안전기술원 신광식 대표와 청암대 소방안전관리과 강인원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업장 사고,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 ▲기타 중대재해 예방관련 규정과 의무이행사항이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상 안전보건의 무이행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책무와 법에 대한 이해도

를 높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과 관련법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과 종사자에 대한 사고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4월 4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여 전 직원 교육, 재해대비 매뉴얼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장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 3년 연속 수상 ‘꽤’

장성군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21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장성군은 청년, 여성, 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와 인구 소멸에 대응하여 ‘위기에 빛나는 총출발 장성형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장성군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 기반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취약계층 지속적 소득 창출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관광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시책 추진에 꾸준히 힘써온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민생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담양군, 현장중심 읍면단위 특화품목 농업인 교육 추진

담양군은 ‘현장중심 읍면단위 특화품목 농업인 영농현장교육’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현장 교육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업인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신소득 품목, 읍면별 지역특화작목, 농업현장의 실증과제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작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읍면단위 특화육성 품목 중 5개 작목 블루베리, 사과대추, 두릅, 복숭아, 포도(샤인머스켓 중심) 작목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희망 분야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9일 추진한 사과대추 교육에서는 봉산면 작목반 및 군 사과대추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관리 이론교육 후 현장을 방문, 재배 적기에 맞는 농가별 상담을 통해 농가의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며 교육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의 맛 그대로...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출시

### 맛 경쟁력 갖춘 지역 음식점 메뉴 밀키트로 제작...캠핑장서 판매 지원

곡성군은 21일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곡성군은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맛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음식점의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해 지역 내 캠핑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10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곡성군 홍보대사인 강래오 셰프의 컨설팅을 받아 인

기 메뉴들을 밀키트 제품으로 구현했다. 참계탕에서부터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능이닭곰탕, 토란탕, 곡성개비정식까지 ‘곡성5미’를 편리하게 맛볼 수 있다. 또한 감자탕, 갈비탕, 해물 철판구이, 수제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을 밀키트로 만날 수 있다. 특히 탕류는 별도의 용기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냄비에 담아냄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 음식점에서는 밀키트 제품을 곡성 주

요 캠핑장 4개소(도림사오토크캠핑장, 정계동솔바람야영장, 꿈꾸는캠핑장, 청소년야영장)에 배달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밀키트를 이용하려면 캠핑장 입장일 전날까지 밀키트 출시 음식점에 사전 예약(유선) 및 입금을 완료하면 된다. 주문이 확인되면 해당 음식점에서는 캠핑장 입장 시각 전에 밀키트를 배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 대표 먹거리를 밀키트로 만든 만큼 캠핑객들에게 곡성의 맛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군 대표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천연염색재단,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천연염색이 갖는 탄소중립 특성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나주시의 탄소중립 실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천연염색을 활용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인류는 화학 섬유와 합성염료가 만들어지기 이전 식물이나 동물 유래의 자원을 활용해 의류를 제작했고 염색했다. 식물에서 얻는 섬유와 염료는 식물이 공기

중의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폐기 처분 시 대기 중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아 탄소중립이 이뤄진다. 반대로 합성 섬유와 염료는 탄소가 83-87% 가량 함유된 석유를 이용해 제작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탄소를 지상으로 끌어 올려 대기 중의 탄소를 증가시킨다. 이에 대해 허복구 재단사무국장은 “천연염색은 이산화탄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람 누구나 옷을 입기 때문에 탄소중립 교육과 체험에 활용하기 좋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재단에서는 천연 섬유에만 염색되는 천연염색 과정과 합성염료의 제조, 피염물 종류, 염색 과정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기 쉽도록 도식화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 화순군,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실시

화순군이 22일 민선 8기를 맞아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경민)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적과 혁신을 통해 활

력 넘치는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화순=박순철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